

농축산물 수입 선결과제 보완대책 우선

신 종 우
경상낙우회

신년 정부당국의 농어민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 증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침체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나 싶더니 농산물 수입을 싸고 경제기획원 당국이 개방먼저 후 보완을 제시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6공화국 벽두에 빈부의 격차해소, 부의 균형분배, 이 모든 것이 과거 무사안일한 타성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정치인으로서 민주시민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정책당국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우리 농민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상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농민이라면 하나같이 무책임한 경제기획원의 처사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공산품에 의해 국가전체 계수상으로 성장을 가져온다면 농민의 생존권과 권익마저 초개와 같이 밟아버릴수도 있다는 묵시적인 태도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또한 관주도하에 수출지향적인 과거의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국가전체의 어느업종이 침체되고 병들고 있는가를 모를리없는 기획원 당국자의 저의가 책임정치 구현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출 몇백억불에 전체국민이

선진국민 행세를 할수없습니다.

이러하면 전업종별 균형발전, 전계층이 고른소득 분배가 되고 난 다음 선진국민 행세를 할수 있는 것이지, 상공인은 마이카 시대로 보는가하면 농민은 아직도 그흔한 싸이카 한대도 사기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까?

상공인과 농민이 서로의 생존권을 주장한다면 정부의 입장은 객관적인 엄정한 중립의 중재자로서 지금까지의 소외된 업종을 보다 회생시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도성장에 대한 농촌의 낙후성에 그 우수한 두뇌의 집합체인 경제기획원이 농촌발전의 청사진설계에 심혈을 기울이는 농

림수산부에 협조하고 나설때입니다.

지금까지 순한양으로 지내온 농민이 약삭바른 이리의 상공인에게 만신창이가 되어 사경을 헤메는 생사의 귀로에선 농촌을 투자가치의 효율성이 낮다고해서 외면한다면 기필코 먼훗날 뿌리없는 나무에 진배없다는 것을 기획원당국은 알아야만 합니다.

농수축산물을 들여와 놓고보자는 기획원과 대책없는 수입은 불가하다는 농림수산부 안이 마치 상공인을 대변하는 기획원과 농민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농림수산부 둘로 갈라지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크게는 국력분열의 조짐이요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본인은 이기회에 농촌문제에 획기적인 투자없이 안된다는것을 밝힘과 동시에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수축협이 대출하고있는 14%로의 현행금리를 절반수준 이하로 인하할 것.

둘째 농민이 임대하고있는 국공유지 토지를 생산농민에게 불하할 것.

셋째 농수축산인의 생업수단에 대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배



제하고 기업은 수출에 주력할 것.

넷째 중장단기 농촌문제의 년차계획 수립에 의한 획기적인 투자를 할 것.

다섯째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생산비를 현실화 할 것.

여섯째 철저한 보완대책에 국내 농축수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때까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확고부동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 등입니다.

60년대서부터 오늘날까지 근 30년을 중화학공업 육성에 국가의 막대한 재원을 집중투자해 공업의 급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로 판명된 이상 공업의 부를 농업에 투자해서 소외된 농촌을 부흥시켜야할 단계로 봅니다.

공업의 선진화에 의한 농업의 선진화를 이룩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동시 굳건한 나라발전에 초석이 될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국민이 세금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을 위한 부처로서 국민의 공복임을 알고 때늦은 농촌 근대화에 좋은 결과를 내릴것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